

케이씨텍의 사랑의 원정대, 한사랑 봉사회

글 케이씨텍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사랑을 실천합니다!”

나눔을 즐기고 키우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반도체 및 LCD 장비 제조 업체인 케이씨텍(www.kctech.co.kr 대표 고석태, 이순창)의 봉사 모임인 한사랑 봉사회 멤버들이 그들이다.

케이씨텍의 한사랑 봉사회는 각자 맡은 업무와 직급은 다르지만 “사랑과 선행을 베푼다”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시작은 2004년. 경기도 안성의 노인농아 수용시설인 “성요셉의 집”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오며 사회 공헌에 힘써온 케이씨텍 고석태 회장의 권유를 계기로 케이씨텍 여직원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당시 10여 명이었던 봉사회 참여 인원은 현재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항상 문은 열려있어 비 회원들도 수시로 참여한다”는 봉사회 회장인 윤이진 대리의 말처럼 이제는 케이씨텍의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사랑 봉사회의 저력은 케이씨텍 임직원들의 활발한 참여다. 회사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사랑 봉사회는 다른 모임과 달리 물품이나 위문금 전달에 그치지 보다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봉사하는 일에 더 비중을 두고있다. 때문에 이미 봉사

는 케이씨텍만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월의 혜성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윤정기 사원은 “신입사원 40여 명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찌는듯한 햇살아래 담쌓기와 발매기등이 벌어진데 진정한 맘의 보람을 느꼈다”고 전한다.

한편 한사랑 봉사회는 매년 “사랑의 일일호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한해만 해도 성요셉의 집 배식도우미 및 생필품 지원, 제5회 안성시민 한마음 가족 문화축제, 혜성원 봉사활동, 행복학교의 생일 잔치,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의 휠체어농구대회 기부, 안성근교 5개교 학교에 장학금 지급, 태안 기름때 제거 자원봉사활동 등 아름답고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케이씨텍 이순창 사장은 “작은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케이씨텍 한사랑 봉사회의 작은 손길이 우리지역사회에 희망의 불빛과 따뜻한 사랑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업이윤의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각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회사 차원에서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럿의 힘은 크고 강하다. 나눔이라는 한마음으로 모인 케이씨텍 한마음 봉사단의 크고 강한 나눔실천의 힘이 든든한 이유다.



먹거리에서 시작하는 풀무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전략을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한다. 최근 선두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으로 창출한 정성적 및 정량적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 보고서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영전략의 하나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자리잡고 있다.

열여섯의 나이에 농군의 길로 들어선 원경선 원장은 1955년에 경기도 부천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장을 세웠다. 녹슬고 쓸모 없는 사람을 단단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풀무질을 하겠다는 뜻에서 농장 이름을 '풀무원'으로 했다. 국토가 화학 비료로 오염되고 있던 1977년 유기농 재배를 통해 "이웃사랑, 생명존중"을 실천한 이후 풀무원은 이 농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를 파는 작은 가게로 시작하여 마침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오늘까지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신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선도기업'이라는 풀무원의 비전(Vision)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풀무원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가 주주와의 직접 대화에 나섰다. 이것은 한국 기업 역사에 특별히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서 풀무원의 공정투명 경영을 상징하는 좋은 사례였다. 또한 풀무원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한국지배구조개선센터로부터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풀무원의 핵심 가치인 '바른마음경영'은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또한 더욱 제고되고 있다.

풀무원 식문화연구원에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식품에 과학

적 역량을 결합하고 있으며 2007년엔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계란 제품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생산 공장 주변의 자연 환경 보존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당연히, 연료, 용수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및 온실가스 저감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풀무원은 환경경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GPN(Green Partnership Network) 등을 통하여 협력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 소비자 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07년 4월 식품업계 최초로 인권, 노동 규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가지 원칙이 들어 있는 UN Global Compact에 서명하고 가입하였으며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한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이런 활동들이 보다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4대 지표 곧 경제성과, 공정투명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환경 경영의 관점에서 풀무원의 2007년을 점검하는 보고서이다.

'LOHAS 선도기업' 풀무원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통해 벤처도 윤리경영 벤치마킹을 해보는건 어떨까.